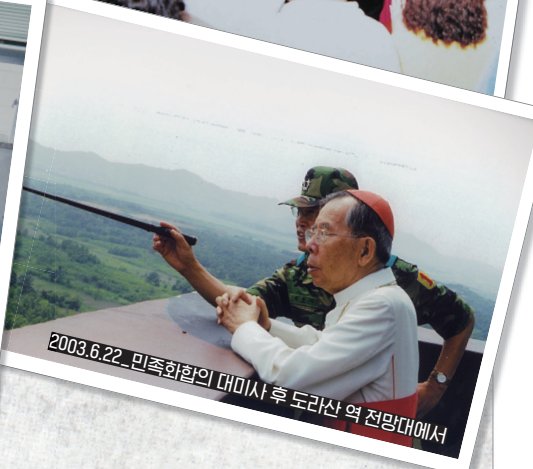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사회의 약자들과 동행한 어른, 김수환 추기경



우리나라 시민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연민을 지닌 분, 인권과 정의를 위한 교회의 사회적 관심과 사명을 살고자 노력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1968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김 추기경님은 ‘세상 속의 교회’를 사목 목표로 정하고 “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 사회에 봉사하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1968.5.29. 명동대성당 교구장좌 착좌식 취임 미사 강론에서)

추기경님의 생활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자, 빈민, 농민, 재소자, 이주민들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독재와 인권탄압의 사회·정치적 상황 아래서 사회정의의 부르짖는 이들에게 추기경님의 관심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이들의 외침에 대한 교회의 응답은 서울대교구의 사회사목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는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교구장(1968-1998) 임기 동안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1970) 노동사목위원회(1971, 이주사목이 분리되어 2014 발족),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1976), 정의평화위원회(1984), 빈민사목위원회(198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1994, 환경사목이 분리되어 2000년 발족), 한마음한몸운동본부(1988) 입니다. 그분은 북한동포에게도 관심을 가졌고, 서울 민족화해위원회(1995)를

발족시켰습니다.

교회의 사회사목은 ‘가톨릭 사회교리’의 실천입니다. 추기경님은 가톨릭시보사(현 가톨릭신문사) 사장을 맡았을 때 교회의 사회 참여(세상에 봉사하는 교회)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의 주춧돌이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관련 내용을 신문에 소개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사회참여를 인식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 추기경님은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인 모든 인간의 인권, 정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억압받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대변하고 연대하였는데, 이 때문에 군사독재 정권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추기경님은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한 교회의 소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예언자적 소명의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천주교회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종교로 여겨지게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6일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조문 행렬은 장례미사 날까지 매일 새벽부터 2km 이상 이어졌고 겨울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4시간을 기다리며 40만 명이 조문했습니다. 시민들의 추기경님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은 그가 ‘사회의 약자들 편에서 그들의 존엄성 회복에 동행’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기 때문입니다.